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한 AtoM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K-Food 콘텐츠를 중심으로

심 갑 용* · 유 현 경** · 문 상 훈***
이 윤 용**** · 이 정 현***** · 김 용*****

1. 머리말
2. AtoM
1) 개요
2) 기능 및 특징
3) 적용사례
3.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 현황
1) 한류문화콘텐츠의 유형 및 특징
2)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 현황
4. K-Food 기록관리시스템 구현
1) AtoM 활용에 따른 고려사항
2) K-Food 기록관리시스템 구현
5. 맺음말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 부교수(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교신저자).
■투고일 : 2014년 12월 14일 ■최초심사일 : 2014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월 15일.

[국문초록]

한류3.0은 기존의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K-Culture'를 핵심어로 내세우며 한국적인 모든 것을 한류문화콘텐츠의 재료로 삼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는 현재 우리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써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한류문화콘텐츠들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AtoM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최근 한류문화콘텐츠 관리는 K-Pop, K-Food, K-Movie 등 특정분야의 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 내에서도 관련 기관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보 축적이 제한적이며 콘텐츠에 대한 재생산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ccess to Memory(AtoM)를 사용하였다. AtoM은 기록의 수집에서부터 축적 및 분류, 기술, 목록관리, 검색 등의 기록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무료로 사용가능한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장점이 있다.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요건에 따라 AtoM을 적용하였다. 특히 K-Food와 관련된 기록콘텐츠를 모델로 선정하여 관련 기록물을 수집 및 분류하였으며 ISAD(G) 표준에 맞추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AtoM을 이용한 한류문화콘텐츠 기록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한계 및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주제어 : 한류문화콘텐츠, K-Food콘텐츠, AtoM, Access to Memory, ISAD(G)

1. 머리말

한류(韓流)는 일시적인 효과에서 머물던 ‘흐름(流)’의 의미를 넘어 한국을 나타내는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다. K-Drama로 시작한 한류 1.0과 K-Pop이 중심이 되었던 한류 2.0을 지나 현재는 한류3.0 시대로 접어들며 기존의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K-Culture’를 핵심어로 내세우며, 한국적인 모든 것 즉, K-Style을 한류콘텐츠의 재료로 삼고 있다.¹⁾ 한류의 변화는 이러한 한류콘텐츠 대상의 확장과 더불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소수의 열성팬을 넘어 세계인으로 주요 대상 및 지역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K-Style 콘텐츠 산업 육성을 창조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한류를 이끈 문화콘텐츠산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 선박과 비교하여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²⁾ 그러나 향후 발전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한류에 대한 정부나 민간 차원의 노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윤 창출에 집중되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류3.0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한류는 이제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홍보 수단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져야 하며, 한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다각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한류문화콘텐츠를 기록물로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콘텐츠 관리는 K-Pop, K-Food, K-Movie 등 특정 분야의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정부 기관이

1)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22~25쪽.

2)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글, 115쪽.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분야 내에서도 콘텐츠를 보유한 여러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해 정보 축적이 제한적이며 콘텐츠의 재생산 또한 미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ICA)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Access to Memory(이하 AtoM)는 한류문화콘텐츠의 분산되고 제한적인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toM은 기록의 수집에서부터 축적 및 분류, 기술, 목록관리, 검색 등의 기록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무료로 사용가능한 웹 기반의 공개소프트웨어이다. AtoM기반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는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아카이브 특성에 맞추어 활용기관 및 개인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customization)를 통해 활용 가능하며 확장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언어를 지원하여 외국어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에게도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류진흥을 위한 전략적 대상은 한식, 한복, 한글,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이 있으며, 이 중 한식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류상품이다. 2013년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의 요인 2위는 식도락관광이었고, 1위인 쇼핑목록 중에도 식료품, 인삼/한약재, 김치 등 상당수가 K-Food와 관련되었다. 정부에서도 한식 세계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에 미국과 중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해·충칭, 베트남 하노이, 미국 LA·뉴욕 등에서 K-Food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하여 먼저 K-Food 콘텐츠를 중심으로 AtoM기반의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콘텐츠 기록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들의 분산적 관리에서 벗어나 분야 간 콘텐츠들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한류문화의 재생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논문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ICA-AtoM의 기능 및 특징, 데이터 모델을 알아보고, AtoM을 활용하여 기록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AtoM 활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류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재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중심이 되는 K-Food 콘텐츠와 관련한 대표적인 기관인 한식재단이 구축한 한식아카이브에 대한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록관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하여 실제 K-Food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별 AtoM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한류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며 한류문화콘텐츠 자체를 기록이나 보존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화 관련 콘텐츠 기록에 대한 보존 필요성에 관해 심승구³⁾는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민속의 활용이 민속문화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반 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류문화의 하위분야에 관한 기록관리 관점의 연구로 문지혜⁴⁾는 한식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물 활용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전통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조선왕조궁중음식 기록물의 제작방식, 활용, 결과물의 한계 등을 분석하여 해당 기록물 활용방식에 주목하여 음식관련 기록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온라인 전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기록물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한식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혜성⁵⁾은

3) 심승구, 「한국 민속의 활용론과 문화콘텐츠 전략」, 『인문콘텐츠』 21, 인문콘텐츠학회, 2011, 27~31쪽.

4) 문지혜, 「한식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조선왕조궁중음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학위논문, 2014.

K-Pop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자, 연구자, 일반 이용자의 K-Pop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구축된 K-Pop 아카이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집, 분류, 서비스 측면에서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사 연구로는 한류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나 한류문화콘텐츠가 한국 방문과 및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로 콘텐츠학과 관광·경영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AtoM에 관한 연구로 이보람 등⁶⁾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AtoM의 기능 및 특징과 설치 방법을 소개하고, 수집형 아카이브와 이관형 아카이브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AtoM을 사용하고 향후 AtoM 활용법에 관해 제안하였으며, 국내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AtoM에 관한 연구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Jessica Bushey⁷⁾는 AtoM의 발전상황과 특징을 소개하며 실제 Memory BC(British Columbia Archival Union List), 밴쿠버 아카이브, 온타리오 아카이브 협회(AAO) 등 여러 기관의 AtoM 활용 사례에 대해 언급하였다. Peter Van Garderen⁸⁾은 AtoM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출시 담당자로서 실제 프로젝트를 주관한 경력을 살려 프로젝트의 의미와 AtoM의 역사 및 비전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아키텍처와 각 표준들 간의 관계를 연결지어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였다.

-
- 5) 주혜성, 「K-POP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6)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호, 한국기록학회, 2014, 193~228쪽.
 - 7) Jessica Bushey, "ICA-AtoM: open-source software for archival description", *Archivi & Computer article*, 2012, pp.1~16.
 - 8) Peter Van Garderen, "The ICA-AtoM Project and Technology", Presentation at Association of Brazilian Archivists, Third Meeting on Archival Information Databases, Rio De Janiero, Brazil, 2009, pp.1~36.

2. AtoM

1) 개요

AtoM은 'Access to Memory'의 약자로 기록관리를 위한 웹 기반의 공개 소프트웨어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흔히 공개 소프트웨어라 불리며 무료로 소스 코드를 개방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및 수정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 관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표 1>과 같다.

<표 1>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유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특징	사용 기관
Omeka	전시 및 온라인 출판 서비스	뉴욕 공공 도서관, 뉴베리 도서관, 허리케인 디지털 기억 은행
AtoM	기록관리(등록, 분류 등)	유네스코 아카이브, 밴쿠버 시티 아카이브
Archivematica	장기보존	뉴욕현대미술관, 예일대학교 도서관, 유네스코 아카이브

AtoM은 ICA의 PCOM(Program Commission) 프로젝트와 Artefactual이 협력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기록물의 유형별, 주제별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여 많은 민간단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ICA의 국제 기술 표준을 채택하여 전 세계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2) 기능 및 특징

AtoM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

용 가능한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다.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공개하여 모든 사용자가 연구, 수정,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단체나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하여 유저와 개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AtoM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⁹⁾ 먼저 AtoM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어느 곳에서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설치 및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접근성은 AtoM을 기록 관리 소프트웨어로서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근간이 된다. 그리고 AtoM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가 없어도더라도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이용자들이 수정 및 개선하여 반영 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모든 AtoM 소스코드는 GNU A-GPL 3.0로 배포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Creative Commons Share-alike license 하에 연구, 수정, 개선, 배포할 수 있다. 한편, AtoM은 국제 표준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SAD(G), ISARR(CPF), ISDIAH, ISDF 등 기록 기술의 표준을 준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및 국가 표준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웹 기반의 편집 템플릿을 제공한다. 또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및 데이터베이스 콘텐츠는 기본 번역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며, 현재 약 20여 개 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AtoM 사용자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또한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포럼(Open Source Archive Software Forum, OSASF)을 중심으로 한글화 작업이 완료되어 v2.1.1에 적용될 예정이다.¹⁰⁾ AtoM은 또한 가져오기

9) <https://www.ica-atom.org/doc/Main_Page>, 2014.12.17. 접근.

10) <<http://osASF.net/>>, 2014.12.4. 접근.

(import)/내보내기(export)가 간편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을 구현한다. AtoM의 가져오기/내보내기 포맷으로는 EAD, EAC-CPF, CSV, SKOS 등이 있다.

한편, AtoM은 단일 기관의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네트워크나 포털로 연계하여 여러 기관 간의 종합 기술목록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유연하며 이러한 특징은 소프트웨어에서 호환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AtoM은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작업하면 그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로 되어 있어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로 인해 전체 커뮤니티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밖에도 AtoM은 다계층 기술을 지원하며 일반 사용자 또는 기관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최적화(customizing)가 가능한 유연한 소프트웨어라는 특징이 있다. 소프트웨어의 유연성은 사용자 입장에서 아카이브의 주제나 규모에 따라 유연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AtoM은 등록·기술·전거 등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기보존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장기보존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rchivematica와 연계하여 보완해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AtoM의 기본적인 기능은 <표 2>와 같이 등록, 기술, 관리, 관리자 기능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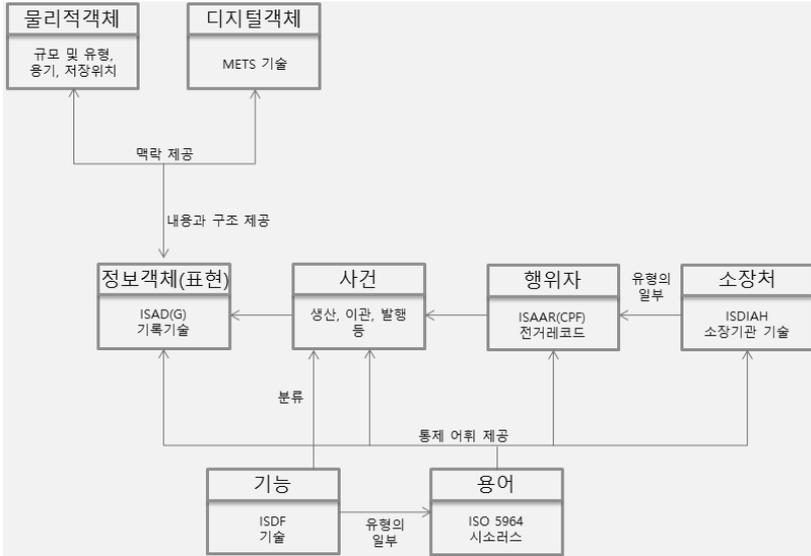
〈표 2〉 AtoM의 기능

상위 기능	하위 기능	세부 내용
Add	Accession records	입수된 기록물 등록
	Archival description	입수된 기록 기술 등록
	Authority records	전거레코드 등록
	Archival institution	기록물 생산·보존 기관 등록
	Terms	기록물 및 시스템 관련 용어 등록
	Function	특정 기능 등록
Manage	Accessions	등록된 기록물 목록 및 검색 제공
	Donors	기증자 목록 및 검색 제공
	Physical storage	실제 기록물 보존 장소 등록 및 관리
	Rights holders	소유 단체 및 개인 이력 등록 및 관리
	Taxonomies	분류 체계 등록 및 관리
Import	XML	XML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CSV	CSV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Admin	Users	AtoM 사용자 등록 및 관리 부여
	Groups	그룹별 권한 부여 및 변경
	Static pages	정적 페이지 관리
	Menus	메뉴 추가 및 순서 변경
	Plugins	AtoM에 적용된 플러그인 변경
	Themes	시스템 테마 변경
	Settings	시스템 전체 설정
	Description updates	기록물 기술·전거레코드 등에 대한 목록 제공
	Visible elements	‘메타데이터·물리저장소’ 숨김/보임

한편, ICA-AtoM 데이터 모델은 다른 기술표준에 유연하게 적용되며, 현재 ISAD(G), EAD, DC, RAD, MODS 등을 교차 지원한다. ICA-AtoM 데이터 모델은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s),전거레코드(Authority records), 소장처(Archival institutions), 용어(terms)와 사건(events) 등의 주요 엔티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은 주요 엔티티로 이루어진 ICA-AtoM 데이터 모델이다.¹¹⁾

11) Peter Van Garderen, “The ICA-AtoM Project and Technology”, pp.32-35.

〈그림 1〉 ICA-AtoM 데이터 모델



기록 기술 엔티티 즉 정보객체는 기록물에 대한 맥락정보를 제공하며, 기록물의 표현(representations)이다. 이것은 폼, 시리즈, 파일, 아이템 등으로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ICA의 ISAD(G)의 기술요소를 표준으로 하며, 기록물의 물리적 성격과 구조, 기술정보, 보관소를 기술하는 물리적 객체 혹은 디지털 객체와 연결된다. 물리적 객체와 디지털 객체는 내용과 구조를 가지며, 정보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정보가 제공하는 맥락정보가 필요하다. 행위자 엔티티는 행위자(actor)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며 ISAAR(CPF)를 표준으로 한다. 소장처 엔티티는 행위자의 한 유형으로 여타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자관 자체의 전거레코드를 가지는 동시에 개관 시각, 연구 서비스, 연락정보 등의 소장처로서의 특징을 ISDIAH를 통해 별도로 기술한다. 별개의 택소노미로 조직된 용어

엔티티는 기술계층이나 전거 유형에 관한 드롭다운 메뉴 옵션이나 주제 접근점 등 AtoM 전반에서 사용되는 통제어휘를 제공한다. 사건 엔티티는 단순히 생성 단계만이 아니라 기록물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보관 과정상의 변화, 보존 처리, 디지털 객체로의 변환, 접근 기록, 기술 수정 연혁 등을 포함한다. 사건 엔티티는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기록물이 발생했던 실제 맥락을 제공하며 특히 디지털 기록 기술에서 ISAD(G)를 사용할 때 유용하다. 사건 엔티티와 다른 엔티티와의 연결은 기록물에 대한 풍부한 검색과 탐색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3) 적용사례

ICA는 1.0 베타버전으로 시작해 1.1 최초 정식버전을 거쳐 현재 2.1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신 버전인 2.1 버전을 활용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외 5개 기관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문화콘텐츠 기록관리에 있어 AtoM의 활용에 따른 고려사항을 작성하였다.

(1)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¹²⁾

AtoM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 사례인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명지대 기록대학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2014년 4월 국내에서 첫 사례로 ICA-AtoM 사이트에 공식 등록되었다. 주요 소장 기록물로는 5월 12일 일기, 개인 기증 기록물, 명지대 컬렉션 등이 있다.

12) <<http://atom.hmarchives.com/>> 2014.12.17. 접근.

(2) Unesco Archives¹³⁾

Unesco AtoM은 2003년 케이프타운에서 아카이브와 인권에 관한 ICA 업무그룹의 착수로 시작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인권의 침해에 관한 기록물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ICA의 생각에 동의했으며,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정보화사업(IFAP)과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사회부를 통해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AtoM의 개념은 곧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흥미를 끌었고 뒤이어 기록기술을 서비스하는 모든 소규모나 중간 규모의 아카이브의 수요를 타깃으로 확장되어갔다. 유네스코 아카이브는 2008년 10월에 AtoM의 개발을 위한 파일럿 기관이 되었고, 사용자 집단과 운영위원회에서 AtoM을 위한 개발 요구사항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3) 밴쿠버 시티 아카이브(City of Vancouver Archives)¹⁴⁾

캐나다의 밴쿠버 시티 아카이브는 AtoM을 활용하여 밴쿠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기록들을 다양한 형태로 모아놓았다.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블로그와 웹 사이트를 운영하여 AtoM을 사용하기 어려운 일반 이용자가 좀 더 쉽게 밴쿠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4) MAIN: Manitob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¹⁵⁾

MAIN는 AtoM을 이용하여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여러 아카이브들이 보유한 기록물의 기술에 대한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매니토바 대학교에서 호스트하고 있다. Association for Manitoba Archives(AMA)의

13) <<http://atom.archives.unesco.org/>> 2014,11,30. 접근.

14) <<http://searcharchives.vancouver.ca/>> 2014,11,30. 접근.

15) <<http://nanna.lib.umanitoba.ca/atom/>> 2014,11,5. 접근.

회원기관은 매니토바 아카이브 커뮤니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관의 기록 기술을 MAIN에 업로드하며 매니토바 주의 풍부한 기록유산에 관한 접근을 장려한다. 이러한 기관은 대학아카이브, 문화유산 기관, 성공회 교회 아카이브 등이 있다.

(5) 코퀴틀람 시티 아카이브(City of Coquitlam Archives)¹⁶⁾

캐나다의 코퀴틀람 시티 아카이브는 코퀴틀람 시의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를 알게 하고 코퀴틀람 시 및 행정 기관의 기록학적 가치를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코퀴틀람 시티 아카이브는 검색할 때 드롭다운 메뉴에서 검색에 관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문자를 이용한 검색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따옴표(“”)를 이용하면 비슷한 단어는 검색에서 제외되며, 아스테리스크(*)를 이용하면 복수문자 검색이 가능하고 물음표(?)를 이용하면 단일문자 검색이 가능해진다.

〈표 3〉은 조사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건의 양과 유형, AtoM 상에서 제공되는 카테고리 및 기술계층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AtoM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를 기반으로 웹 사이트 개설 및 연계 등을 통해 일반이용자들이 쉽게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16) 〈<http://searcharchives.coquitlam.ca/atom-2,0,1/>〉 2014.11.5. 접근.

〈표 3〉 기관별 AtoM 사용 분석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Unesco Archives	City of Vancouver Archives	MAIN: Manitob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	City of Coquitlam Archives
기록물 양 (건)	1,693	15,893	244,096	23,099	111
기록물의 유형	Image	/	Image	Image	Image
	Text	Text	Text	Text	Text
	Video	/	Video	/	/
	Audio	/	Audio	/	/
	Other	/	/	Other	/
카테고리	소장기록물 정보	Archival Descriptions	Archival Descriptions	Archival Descriptions	Archival Descriptions
	인물·단체별 정보	Actors	Personals /organizations	Authority records	Person /Organizations
	/	Subjects	Subject terms	Subjects	Subjects
	장소별 기록물	Countries	Place name terms	Places	Places
	디지털 기록물	Digital objects	Digital objects	Digital Objects	Digital objects
	기록소장처별 정보	/	/	Repositories Functions	/
언어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French		French	
기술계층	Collection	Archive Group	Fonds	Collection	Fonds
	Fonds	Fonds	Subfonds	Fonds	Sousfonds
	Subfonds	Subfonds (Subsubfonds)	Part	Series	
	Series	Series	Series		
	Subseries	Subseries (Subsubseries)	Subseries	File	Series
	File	File		Item	Subseries
	Item (Part)	Item	File		File
	Component		Item		Item Part

특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온라인 기록물 전시 서비스 제공	AtoM의 기본적인 카테고리 이외에 일주일 동안 이용자가 가장 많이 열람한 기록물에 대한 상위 10건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연관검색기능을 통한 부가정보 획득	보유 기록물 기술을 위해 온라인 검색 DB활용	AtoM 기본테마의 배경이미지 및 로고 변경
	국내 최초 AtoM 구축 및 열람 서비스 제공		일반이용자를 위한 웹 사이트 개설		정확한 명칭 검색을 위해 특수문자를 이용한 검색 지원
	기록물 열람 서비스 및 안내를 위한 웹 사이트 개설	Unesco AtoM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사이트 개설	블로그를 이용한 키워드 태그 AtoM의 기본적인 카테고리 이외에 일주일 동안 이용자가 가장 많이 열람한 기록물에 대한 상위 10건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기록물 검색 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세한 검색 결과 제공	Coquitlam city hall의 웹 사이트와 연계

이밖에도 AtoM 2.0 버전을 사용하는 기관은 18곳, 1.0 버전은 26곳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브라질 등 사용 국가가 다양하며 특히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쪽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3.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 현황

1) 한류문화콘텐츠의 유형 및 특징

한류의 탄생은 1997년 드라마로 시작되어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유행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처음으로 다른 국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한류 1.0이라고 한다. 한류 1.0의 핵심장르가 드라마였다면, 한류 2.0은 K-Pop이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K-Pop이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아시아에서 상당

한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를 발판삼아 몇몇의 가수는 미국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K-Pop은 한류 1.0보다 그 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여기에는 유튜브나 SNS 등의 인터넷 매체의 기여가 컸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동안 한류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이 말하는 한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었으며, 이에 한류가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를 알리기 위한 단계로, 2012년 1월 30일에 설립된 한류문화진흥단에서는 K-Pop을 비롯한 한류를 한국문화의 모든 것과 연결시키는 K-Culture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¹⁷⁾ 즉, 개별적인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문화를 통틀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한류 2.0의 대상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자는 것이다. 다음 <표 4>는 한류의 버전별 특징이다.

<표 4> 버전별 한류의 특징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시기	1997~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의 다양화
핵심장르	드라마(K-Drama)	K-Pop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문화, 일부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
대상국가	아시아	아시아, 유럽 일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일부	전 세계
주요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20대	세계 시민
주요 매체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유튜브, SNS	모든 매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류백서』, 25쪽.

17)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14~26쪽.

한편, 문화콘텐츠는 영화, 음악, 도서 등과 같이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적 요소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내는 문화상품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문화산업과는 달리 문화콘텐츠사업은 일반적인 문화산업 영역 이외에 IT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산업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 각국의 문화콘텐츠 사업은 산업별 기준에 따라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저작권산업, 창조산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사업은 지식, 감성, 창의력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었다. 국내 콘텐츠 사업은 미디어, 관광, 체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업과 IT기기 등의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¹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한류문화콘텐츠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등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영상콘텐츠를 비롯한 시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표 5>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주요 문화콘텐츠의 수출액 현황이다. 해가 갈수록 문화콘텐츠 총 수출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게임과 음악콘텐츠 분야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의 수출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문화콘텐츠 수출액 현황

구분	수출액 (단위: 천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출판	191,346	184,867	213,100	260,010	250,764	357,881	283,439
만화	3,268	3,917	3,986	4,135	4,209	8,153	17,213

18)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방안』,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1~185쪽.

음악	22,278	16,666	13,885	16,468	31,269	83,262	196,113
게임	564,660	671,994	781,004	1,093,865	1,240,856	1,606,102	2,378,078
영화	75,995	24,515	24,396	21,037	14,122	13,583	15,829
애니메이션	78,429	66,884	72,770	80,583	89,651	96,827	115,941
방송	121,763	133,917	150,953	171,348	184,577	228,633	222,372
광고	9,359	75,981	93,859	14,212	93,152	75,554	102,224
캐릭터	163,666	189,451	202,889	228,250	236,521	276,328	392,266
지식정보	34,764	5,016	275,111	339,949	345,693	363,282	432,256
콘텐츠 솔루션	35,608	-	112,678	107,746	113,418	116,487	146,281
합계	1,301,136	1,373,158	1,944,631	2,604,232	3,226,092	3,226,092	4,302,012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방안』, 15쪽.

한류 3.0의 핵심용어인 K-Culture는 기존의 한류 1.0과 2.0보다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장르 또한 단순한 문화영역을 넘어선다. 즉 한류 2.0에 생겨나기 시작한 음식 한류, 의료 한류처럼 한류는 문화이자 탈문화를 지향한다. 학계에서도 한류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한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배재대학교의 한류문화산업대학원과 가톨릭대학교의 한류대학원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한류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적 의제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대상이다.¹⁹⁾ 2012년도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이전의 K-Pop과 다르게 유튜브를 통해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팝송의 중심인 미국까지 닿았다. 이렇듯 한류는 그 범위가 계속해서 진화되었고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만의 스타일인 K-Style로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19) 문화체육관광부, 「한류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22~25쪽.

2)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 현황

(1) 한류문화콘텐츠의 관리 현황

한류문화콘텐츠는 한류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한류문화를 만들어냈던 K-Drama부터 시작해 K-Movie, k-pop, K-Food 등 여러 개의 콘텐츠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문화콘텐츠는 각각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① 한국영상자료원²⁰⁾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필름, 시나리오, 포스터, 스틸사진, 문헌을 비롯한 DVD, 온라인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보존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기록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다. 먼저 기록물 수집은 기증, 영화 필름 제출제도, 위탁, Digital 시네마 제공 등이 있으며, 관리는 필름 및 필름 외 자료 보존과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영상자료의 복원,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구분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1999년부터 영상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영상자료의 보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DB(DataBase)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 2005년에는 디지털 영상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링 연구 작업을 시작하였다. 영상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데 영상도서관, 시네마테크 KOFA, 한국 영화박물관, DB, VOD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영상기록물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이용서비스가 중심으로 이뤄져 해당영화의 맥락정보 제공은 이루어지

20) <<http://www.koreafilm.or.kr/>> 2014.10.15. 접근.

지 않고 있다.

② 문화재청²¹⁾

문화재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관련 행정기관으로 국내에 있는 유,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지정된 국내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정보공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이용방법과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이용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정보공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달마다 이루어지는 결재문서와 보유문서 목록, 2007년 이전의 문서들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문화유산에 관련된 기록물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감사,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등 다양한 행정자료들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 자료, 영상 자료, 음향 자료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간단한 제목을 붙여 관리하고 있을 뿐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설명과 문화유산의 촬영 시기, 장소, 사용된 기기 등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은 ‘종목’, ‘명칭’, ‘분류’, ‘수량/면적’, ‘지정일’, ‘시대’, ‘소유자’, ‘관리자’ 등 동일한 포맷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웹서비스는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주로 치중되어 문화유산에 대한 맥락정보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²⁾

21)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2014.11.1. 접근.

22) 김수정, 김용,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위한 FRBR 기반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013, 119-141쪽.

③ 한식재단²³⁾

한식재단은 한식의 국내·외 식품산업에서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식의 정통성 정립, 한식의 산업진흥, 한식의 세계화 추구 등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⁴⁾ 이를 목적으로 한식재단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레시피, 한식스토리 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식재단 산하에 한식아카이브를 개설하여 국내의 궁중음식과 민간음식이 기록된 그림 및 고문헌 등을 기록 관리 하고 있다. 한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한국음식의 원형을 밝힐 수 있는 관련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한식 관련 고문헌 조사 연구를 통해 한국 음식 원형의 정수인 조선시대 궁중음식 아카이브 구축에 이어 조선의 민간음식과 한국 근대한식문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조선조부터 근대까지 한식 원형에 대한 전체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²⁵⁾

한식아카이브는 조선시대 궁중음식 고문헌에서 음식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문헌을 추출하여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문구를 쉽게 풀어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콘텐츠화하였다. 한식아카이브에서는 궁중음식관련 문헌 약 400여 종, 민간음식 관련 문헌 500여 종, 근대음식 관련 문헌 359종 등 총 1,300여 종의 조선시대부터 기록되어온 음식관련 문헌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고문헌 이외에도 번역서, 단행본, 향토음식자료, 풍속서류, 종가사찰자료, 연구 성과물, 영상자료, 시각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9400여 건의 목록과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식재단과 한식아카이브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을 콘텐츠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식재단은 한식에 대한 콘텐츠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한식에 관한 맥락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보고서와 같

23) <<http://archive.hansik.org/>> 2014.11.14. 접근.

24) 양일선, 「한식재단」, 『한국콘텐츠학회지』 10(3), 한국콘텐츠학회, 2012, 61쪽.

25) 양일선, 같은 글, 61~64쪽.

은 자료들 또한 E-BOOK과 PDF로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다운로드만 가능하며 다른 관련기술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식아카이브는 한식재단과 달리 기록을 관리·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고문헌과 현대에 만들어진 조선시대 전통음식관련 논문들까지 같은 형태의 서지정보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그림 등과 같은 기록물은 기술정보 없이 단순하게 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설명만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 6>은 현재 한식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한식아카이브의 서비스 분류체계이다. 한식아카이브는 이러한 서비스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검색을 할 경우 기록물들이 가나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 정확한 기록물의 제목을 모를 경우 분류체계를 이용한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식아카이브는 단어를 통한 검색시스템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검색을 위해 단어 등을 입력할 경우 여러 가지 기록물에서 부분적인 단어들 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어검색 이후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표 6> 한식아카이브 서비스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식 콘텐츠 목록	고문헌분류	한국고문헌, 일본문헌, 중국문헌, 근대문헌
	한식분류	조리서류, 식재료서류, 구황서류, 식식품속류
	시대분류	고려이전,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시기, 광복 이후
한식문헌 상세해제	문헌분류	의궤류, 음식발기류, 종합류
	시대분류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미상
옛 그림 속 한식	회화분류	의례음식, 연회음식, 일과 음식, 일상음식
한식연구 결과물	한식스토리텔링	밥, 죽, 면/만두, 국, 찌개, 전골, 찜, 나물, 조림, 볶음, 구이, 전, 회, 김치, 장아찌, 젓갈, 떡, 한과, 음청류, 한정식
	역사성 있는 한식당	대한민국의 한식당 역사를 묻다, 오래된 한식당 개업연도별 보기, 오래된 한식당 지역별 보기
한식 이야기	한식 원형복원 대중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AtoM을 이용하고자 한다. AtoM은 기존의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등록 및 관리하기 어려운 유형, 매체, 형태의 기록을 아카이브로서 관리, 검색 및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²⁶⁾.

(2) AtoM 활용의 필요성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종의 브랜드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한류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류에 관한 국가 정책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외국인 관광, 해외 수출 등에 집중되었고,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한류문화콘텐츠들의 보존과 관리가 미흡하여 전보다 양질의 콘텐츠로 발전되거나 다른 정보 객체와 연계되어 재생산되는 등의 발전이 적었다.

한편, ‘한식에 관한 아카이빙’을 표방하여 한식재단에서 구축한 한식 아카이브는 체계적인 기준과 별도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단순히 웹을 통하여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류문화는 시대 및 사회적 현상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요소도 있는 반면에 시대적 흐름, 유행과 사회적 성향에 맞추어서 변하고 발전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콘텐츠가 생산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기록화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인력의 도입이나 시스템 구축 등에서 어려움이 어렵다. 따라서 AtoM 등과 같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26)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193-228쪽.

의 도입을 통해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제대로 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한류문화콘텐츠 분야의 좋은 사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AtoM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국제표준 등을 준용하여 개발된 공개용 소프트웨어로써 향후 콘텐츠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측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4. K-Food 기록관리시스템 구현

1) AtoM 활용에 따른 고려사항

K-Food 콘텐츠의 기록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AtoM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먼저 K-Food 콘텐츠 특성에서 비롯된다. K-Food 콘텐츠는 국가의 국방, 외교 등의 공공기록과 같은 보안에 민감한 기록이 아닌 음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노출 및 제공을 통하여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용상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 있는 접근과 이용자가 획득하고자 하는 기록이 무엇일지를 고려해야함과 동시에 음식의 유형 및 속성에 따른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통한 기록화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식의 하부영역인 한국 전통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단절됐음에도 집집마다 가양주 형식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전통주의 기록화는 전통주의 범주 정의, 지역별 술 분포, 지역별 전통주의 특징, 전통주 스토리텔링, 재료, 신뢰성 있는 문헌들의 원문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체계적 기술을 통하여 관리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드라마, 광고, 소셜 등에서 활용됨으로써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른 세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둘째, ‘Access to Memory’, 즉 ‘기억으로의 접근’이라는 명칭과 같이 AtoM 프로젝트의 근

본적 목적은 아카이브를 통하여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AtoM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인 ‘웹 기반’으로써 아카이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용자들에게 자관의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 한다.²⁷⁾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용자들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순 검색, 계층별 검색 뿐만 아니라 생산기관, 기록소장처, 주제어 검색 등의 다양한 접근점을 지원해야 하며, 연관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물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거레코드 등의 생소한 단어를 주제, 생산자 등으로 상용화한 해외 사례처럼 기록관리 전문용어라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문화콘텐츠의 유형 및 수량을 고려하여 기술 계층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분류해야 한다. 기록물의 양이 적고 분류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계층이 너무 다양할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관리 및 검색에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다양성과 함께, 양적으로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리 및 기술계층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대변할 수가 없어 검색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2) K-Food 기록관리시스템 구현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인수, 보존, 데이터 관리, 통제 및 보안, 처분, 통합 기록관리, 검색 및 열람, 관리, 보고서 관리 등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²⁸⁾ 아래의 <표 7>은 9번째 기능인 보고서 관리를 제외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건에 따라 AtoM 활용 영역을 분류한 것이다.

27) Peter Van Garderen, "The ICA-AtoM Project and Technology". pp.23

28)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NAK/S 6:2009(v1.1)』, 대전: 국가기록원.

〈표 7〉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에 따른 AtoM 적용 방안

상위 기능	하위 기능	세부 내용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추가 (Add)	인수 기록 (Accession records)	입수된 기록물 등록	①,②,④,⑤
	기록 기술 (Archival description)	입수된 기록 기술 등록	①,②,③,⑥
	전거레코드 (Authority records)	전거레코드 등록	①,⑧
	기록보존소 (Archival institution)	기록물 생산·보존 기관 등록	①,⑧
	용어(Terms)	기록물 및 시스템 관련 용어 등록	①,⑧
	기능(Function)	특정 기능 등록	①
관리 (Manage)	인수(Accessions)	등록된 기록물 목록 및 검색 제공	③,⑥,⑦
	기증자(Donors)	기증자 목록 및 검색 제공	⑥,⑦
	물리적 저장소 (Physical storage)	실제 기록물 보존 장소 등록 및 관리	③,⑦
	저작권 (Rights holders)	소유 단체 및 개인 이력 등록 및 관리	⑤,⑦
	택소노미(Taxonomies)	분류 체계 등록 및 관리	①,③,⑦
들어오기 (Import)	XML	XML 형태의 문서 들어오기	②,④
	CSV	CSV 형태의 문서 들어오기	②,④
관리자 (Admin)	사용자(Users)	AtoM 사용자 등록 및 관리 부여	⑤,⑧
	그룹(Groups)	그룹별 권한 부여 및 변경	⑤,⑧
	정적 페이지 (Static pages)	정적 페이지 관리	⑧
	메뉴(Menu)	메뉴 추가 및 순서 변경	⑧
	플러그인(Plugins)	AtoM에 적용된 플러그인 변경	⑧
	테마(Themes)	시스템 테마 변경	⑧
	설정(Settings)	시스템 전체 설정	⑧
	목록 제공 (Description updates)	기록물 기술·전거레코드 등에 대한 목록 제공	⑧
	숨김/보임 (Visible elements)	‘메타데이터·물리저장소’ 숨김/보임	⑤,⑧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①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 통제 ②기록물 인수 ③저장 및 보존처리 ④처분 ⑤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⑥검색·활용 ⑦비전자기록물 통합관리 ⑧시스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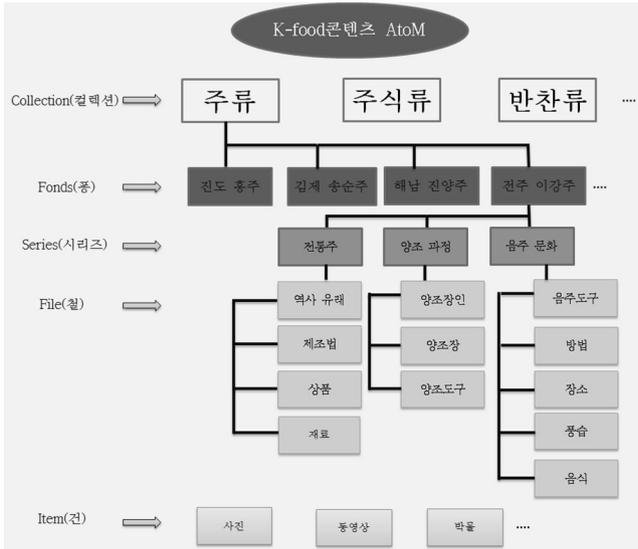
(1)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 통제

AtoM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계층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Food 콘텐츠를 주제로 하여 컬렉션을 K-Food의 유형인 주류, 주식류, 반찬류, 후식류로 설정하였다. 주류를 예를 들면 출처를 의미하는 품 단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통주 제조 지역을 출처로 삼아 진도 홍주, 김제 송순주, 해남 진양주, 전주 이강주 등으로 나누었으며, 전통주의 범위는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명인주, 민속주, 농민주로 제한하였다. 하위계층은 유재우²⁹⁾의 전통주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시리즈와 첩 단위를 설정하였는데, 유재우의 분류방법은 전통주와 관련된 기록물을 술이라는 큰 범주로 정리·분류하지 않고 양조 과정 및 문화까지 같은 계층으로 분류하여 전통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측면까지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하위계층은 사진, 동영상, 박물관, 구술기록 등의 콘텐츠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림 2>는 K-Food 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하여 설정한 K-Food 콘텐츠 AtoM의 기술계층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수집전략을 통하여 확보된 기록물을 AtoM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준 설정이 필수적이다. AtoM에는 ISAD(G), ISAAR(CPF), ISDIAH, ISDF 템플릿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MODS, RAD, DACS 등 국가표준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의 기관들은 대부분 RAD를 기반으로 지역에 맞게 특성화하여 자관의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그림 3>은 AtoM상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는 모습이다.

29) 유재우, 「전통주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학적 방법론 연구: 수집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그림 2〉 K-Food 콘텐츠 기술계층



〈그림 3〉 템플릿을 선택하는 모습



(2) 기록물 인수

기록물 인수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록의 신뢰성 및 진본성을 하기 위해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을 함께 인수받아야 하고 이를 감사하고 추적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기록물과 그 메타데이터를 대량으로 자동화하여 이관받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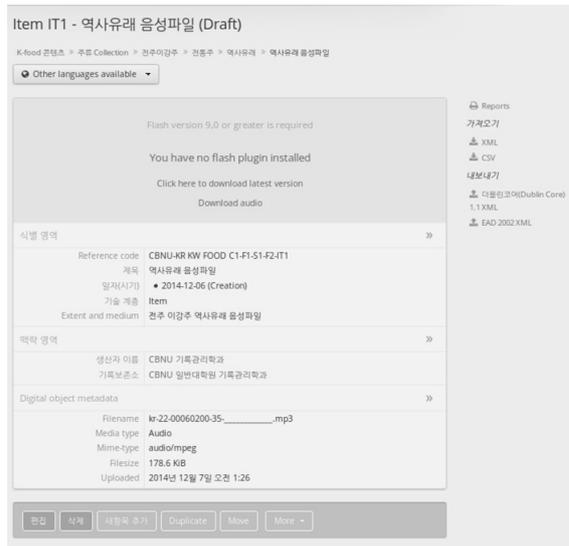
K-Food 콘텐츠는 사진, 동영상, 구술기록, 문헌, 박물 등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 모두를 수집 대상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유래, 제조법, 음식 스토리텔링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선수집하도록 한다. 한류문화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공문서와는 달리 인수형이 아닌 수집형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여러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류문화콘텐츠와 이용자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집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 소장기록물을 구매하거나 기증을 받고 연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기관의 자체적인 이벤트 개발을 통해 정기, 비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추가 기록물도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인수된 기록물은 사용자가 설정한 기록계층을 기반으로 기록 관리의 주요 원칙인 다계층기술의 원칙에 따라 최상위계층에서 하위까지 각 기술 계층에 적합한 정보를 기술하되, 상위 계층 기술에서 이미 제공한 정보를 하위 계층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특히 한류문화콘텐츠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용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류문화콘텐츠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따라 기술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K-Food 콘텐츠의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계층에서 기록을 기술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컬렉션 단위에서 기술요소가 비교적 많이 채워지며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단순하게 기술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술된 건이 오디오파일이기 때문에 디지털 객체 메타데이터 영역이 자동으로 생산되었다.

〈그림 4〉 콜렉션 단위의 기록 기술



〈그림 5〉 파일 단위의 기록 기술



(3) 저장 및 보존처리

저장 및 보존은 인수한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 및 지속적인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며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보존포맷 변환,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화를 위한 관리 기능 지원이 필요하다.

관리(Manage)의 하위기능인 ‘물리적 저장소(physical storage)’로 실제 보존 장소를 등록하여 비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서고를 통합 관리하며, 비전자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편의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용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위치 및 관련 기술정보를 통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디지털 및 디지털화된 원본 기록물의 저장 및 관리에 있어서 AtoM은 디지털 파일의 업로드가 2MB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디지털 파일의 경우 별도의 저장서버에 원본은 보존하고 URL을 통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Atom은 장기보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Archivematica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4) 처분

AtoM은 기록 처분을 위한 기능으로 ‘기록물 처분(Deaccession records)’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하여 삭제된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처분 번호, 처분 범위 및 날짜, 처부 사유 등을 기입하고, 기록처분에 관한 기록 자체 또한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어 관리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다른 기관과 콘텐츠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내보내기와 가져오기 기능이 있으며 내보내기는 DC 1.1 XML, EAD XML의 포맷을 지원하며 가져오기는 XML, CSV 포맷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활용에도 유용하다.

(5)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AtoM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보안 통제가 요구되는 비밀기록물의 관리를 위해 draft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등록 과정에서 draft 기능을 선택하면 이용자에게는 접근이 허락되지 않도록 일반이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고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보안을 위해 사진 등의 기록에는 워터마크 기능을 이용해 유출을 금지하고 저작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용자(users)와 그룹(group)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 AtoM 사용권한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6) 검색·활용

본 연구에서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위하여 AtoM을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AtoM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검색의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되는 한류문화콘텐츠는 기록물의 속성상 이용자의 편의성 있는 접근과 이용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toM은 기록계층에 따른 소장기록물, 기록소장처별, 생산자별 검색을 포함해 주제별, 기능별로 기록 기술에 대한 검색의 접근점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기록물 검색이 용이하다. 특히 소장기록물 검색은 이용자가 찾는 기록물이 특정 계층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록물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맥락을 파악하기 쉽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내용 및 맥락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ICA에서 제시하고 있는 ISAD(G) 등의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용이하다.

(7) 비전자기록물 통합관리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의 통합기록관리를 위하여 AtoM은 관리기

능(manage)에서 인수(accessions), 기증자(donors), 물리적 저장소(physical storage), 저작권(right holders), 택소노미(taxonomies) 등의 하위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등록된 기록물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증자 명단과 실제 기록물이 위치한 장소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원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이력을 등록·관리하며 분류체계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계층 재설계에 따른 기록물 이동 및 재구조화 등이 용이하여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계층의 하위계층에 포함되는 계층의 기록물이 함께 이동될 수 있다.

(8) 시스템 관리

관리자 기능(admin)은 사용자에게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권한의 범위를 설정해주며, 시스템의 메뉴 추가 및 순서 변경, 콘텐츠에 맞는 테마 변경, 기록물 기술과 전거레코드에 대한 목록 제공, 메타데이터와 물리저장소 항목의 숨김 메뉴도 제공하고 있다. 기본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K-Food 콘텐츠에 맞는 로고, 배경색상, 레이아웃 등을 선택하여 상용화할 수 있어 기관의 색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AtoM의 상위 네 가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한류문화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구현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AtoM은 기록관리를 위한 다양한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발된 공개용 소프트웨어로써 민간영역 및 공공영역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toM을 이용한 기록물 기술은 다계층기술을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한 기록화에 있어서 많은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AtoM이 제공하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은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기술적 측면과 홍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홍보적 측면에 있어서 AtoM에 대한 한글화가 최근에야 이루어졌으며 특히, AtoM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AtoM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Windows 운영체제를 지원한다고 기술되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Windows 환경에서 설치 및 구현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Linux 환경에서 그나마 설치 및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원본을 저장 및 관리하는데 있어서 파일의 업로드가 2MB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영상파일이나 음성파일과 같이 용량이 큰 기록물들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거나 PHP 스크립트 실행 제한 설정을 변경하여 적용시켜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성 및 성능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5. 맺음말

K-Drama와 K-Pop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1.0과 2.0이 지나고 한류 3.0을 맞아 한류문화의 범위와 대상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한류문화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국가 이미지 제고와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류문화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한류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기록물의 한 유형으로서 한류 문화콘텐츠를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인력이나 시스템 등의 기록관리 체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류에 관한 국가 정책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외국인 관광, 해외 수출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었으며,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콘텐츠는 보존

과 관리가 미흡하여 양질의 콘텐츠로써 발전되거나 다른 정보 객체와 연계되어 재생산되는 등 콘텐츠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A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toM을 활용한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건에 따른 AtoM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한류문화콘텐츠의 대표사례인 K-Food 콘텐츠의 기록관리 활동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개용 소프트웨어인 AtoM은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접근성이 훌륭하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한류문화콘텐츠 간 연계와 체계적 관리에 유용하며, 아직까지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예산을 들여 구축할 수 있는 기록관리 도구로써 훌륭한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한류문화에 관련된 타 기관의 시스템과 상호호환에 유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용화를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의 특징을 살리는 기록관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록물로써 한류문화콘텐츠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실제 기록관리 방안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toM을 도구로 제안한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 국내에 실제 기록물을 적용하여 Ato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발전을 위한 선행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및 보존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AtoM의 특성상 장기보존이나 이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전시 등의 서비스로는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보존을 위한 Archivematica나 전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Omeka 등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인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Availability of AtoM for Recording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 A Case of K-Food Contents

Shim, Gab-yong · Yoo, Hyeon-Gyeong · Moon, Sang-Hoon
Lee, Youn-Yong · Lee, Jeong-Hyeon · Kim, Yong

Korean wave 3.0 is focused on 'K-Culture' which includes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art as well as existing culture contents as a keyword. It considers everything about Korean culture as materials of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Since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reflect contemporary social aspect, it needs to preserve those contents as archives and records which have the important value of evidence. With this soc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RMS based on AtoM that manages various kinds of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through analysis of management situation of those materials. Recently, it is in progress individually to manage them through organizations dealing with Korean cultures such as K-Pop, K-Food, K-Movie. However, it has problems in accumulating information and reproducing high quality contents because of lack of coordination among organiza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RMS based on open source software Access to Memory(AtoM) for managing and recording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AtoM provides various functions for managing records and archives such as accumulation, classification, description and browsing. Furthermore AtoM is for free as

open source software and easy to implement and use. Thus, this study implemented RMS based on AtoM to methodically manage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by functional requirements of RMS. Also, this study considered contents relating K-Food as an object to collect, classify, and describe. To describe it, this study selected ISAD(G) standard.

Key words : Korean wave culture contents, K-Food contents, open source software, AtoM, Access to Memory, ISAD(G)